

최근의 북중 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

안인해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6월 초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의 대규모 고위 지도부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우호적인 상호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본 고에서는 북중 관계 복원 노력의 의미와 영향을 동북아 질서 재편, 북한의 대내 정책, 남북한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중 관계로 최근 중국에서는 'Cox보고서', 미국의 TMD 개발 계획, NATO군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피폭 등으로 인해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지구적 문제와 지역적 문제를 분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구적 문제에서 미국과 대립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에서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북한이 제2의 유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으로 유사시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 관계 복원과 북한의 대내 정책으로 북한의 지도층들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의 대외적 노출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북한은 朝中 우호 관계를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지만,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한다면, 이는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와 주변국의 역할로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계기로 주변의 전통적인 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중 관계의 악화에 대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들의 체제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중국·구소련 분쟁을 이용한 국가 이익 극대화의 외교 전략을 구사한 경험이 있는데, 만약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어 지구적 문제와 지역적 문제에까지 확대된다면 미중간의 경쟁 관계를 이용하여 대미 협상에서 벼랑끝 외교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중 관계가 화해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화합 분위기에 힘입어 교류 협력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북중 관계 개관

주요

국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국은 남한과는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관계 심화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 등 꾸준한 관계 발전을 이루었으나, 북한과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관계를 단절하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안정적 주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급격한 몰락에 대비하고 미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전략 하에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김정일지도체제에 대한 사실 상의 지지를 표명하였다.¹⁾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약화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간의 냉전 종식에 따른 군사적 동맹 의식이 이완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이념적 결속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의 덩샤오핑, 류화칭, 장쩌민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최광, 김광진 등 양측의 참전·혁명 세력이 대부분 사망하고 이들의 퇴진으로, 양국 지도층간의 유대감이 약화됨으로써 긴밀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7년의 황장엽 망명 사건에 이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시도²⁾와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은 서로간에 갈등을 겪은 경험이다. 또한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북한의 對중국 신뢰감이 저하되었고, 북한은 1997년 8월 이후 개최되어온 4者 회담 예비회담 및 본회담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회피함으로써, 북중간의 불협화음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90년대에 故김일성(1991)의 방중 이후, 양상쿤(1992) 및 후진타오(1993)가 방북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고 위급간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이처럼 한중 수교를 계기로 북중 관계가 사실상 큰 손상을 입었으나 중국과 북한은 상징적 의미와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양국 관계를 유지해왔다.³⁾ 따라서 전반적으로

1) 1998년 9월 장쩌민 주석은 김정일을 수장으로 하는 북한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요지의 북한 정권 창건 50주년 기념 축하 전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주중 북한대사관 기념 리셉션에 후진타오 국가부주석, 탕짜쉬엔 외교부장, 따이뻥궈 당 대외 연락부장, 푸취엔유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노동당), 외교부 및 군간 대표단의 연례적 교환 방문 등 매년 당·정·군간의 상호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2) 「자립단보」(1997. 1.12).

양자 관계가 위축되어온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이념적 요소가 강한 당 및 군간의 교류를 통해 전통적 관계를 유지해왔다.⁴⁾ 양국은 중국 공산당 및 북한 노동당 대표단간의 상호 교환 방문을 매년 4 회 실시해왔으며, 중국인민해방군 및 북한인민군친선 방문단의 상호 교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⁵⁾ 이러한 당 및 군 차원의 교류는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서, 중국과 북한은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양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른 한편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가 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정세 하에서의 현실을 인식케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1992년부터 북한과의 무역에서 경화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여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왔다. 다만, 북한의 어려운 외환 사정을 감안하여 1993년 이후 구상 무역을 일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중국은 북한의 거둬들인 경제난에 따른 체제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여, 식량과 원유 등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다.⁶⁾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원유를 지원하는 것이 북한체제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내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양자간 교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 및 유상 지원이 증가하게 되었다.⁷⁾

- 3) 한중 수교일인 1992년 8월 24일 중국은 "한중 수교 후에도 북한과의 선린 우호 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과의 상호 원조 조약 등 이미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앞으로 변치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1992년 9월 11일 북한도 한중간의 무역·경제 관계가 외교 관계로까지 발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응하였다.
- 4) 199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40주년을 맞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보낸 최고위급인 후진타오 정치적 상무위원과 처하오티엔 국방부장을 정부 대표로 한 대규모 당·정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후진타오는 방북 직전 단동에 있는 '항미원조기념탑' 준공식에 참석,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정당화하는 북한과의 혈맹 관계 지속을 강조하였다.
- 5) 1996년까지 계속 활성화되어왔던 양측 당 및 군간의 교류는 1997년의 황장엽 사건 및 대만 핵폐기를 북한 이전 문제로 다소 침체되었으며, 본래 각 4 회씩 예정되어 있던 양자간 당 차원의 정례 교류 가운데 중국측만 2 회 방북했을 뿐, 북한은 방중 계획을 전면 취소하였다. 1997년도에 중국측의 주도로 당 및 군간의 교류가 재활성화되었는데, 1998년 2월 중국공산당대표단(단장: 리청런 대외연락부 부부장) 방북에 이어 1998년 8월에는 중국인민해방군대표단(단장: 송광하이 부총참모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 6) 정치 분야의 인사 교류가 다소 정체되고 있는 데 비해, 경제 분야의 양자간 인사 교류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1996년 5월 스팅성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방북, 1996년 9월 룽용투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 방북, 1997년 4월 이성록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1997년 6월 류산짜이 중국 대외부역경제합작부 부부장 방북.

중국과 북한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상호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이번 북한고위급방문단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일행은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리펑, 주룽지 등의 중국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지방에 대한 시찰을 마쳤다. 이번 방문은 향후 동북아 질서 재편·북한의 내부 변화·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김영남 일행의 방중을 계기로 혈맹 관계 복원을 꾀하고자 하는 북중간의 관계 개선 노력은 동북아 질서 개편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고민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중국형의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셋째, 예상되는 북중·북한 관계 개선은 동북아 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최근 북중 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중 관계

코소보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미국의 중국대사관 폭격 이후 미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체제 유지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반미 노선을 요구할 것인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장쩌민 주석의 국내 정치 기반이 공고화됨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구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 유일의 질서 형성에 대해 반기를 들고 러시아를 대신하여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장쩌민 주석의 의도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호감을 주고 장차 중국의 입지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Cox보고서'⁷⁾를 통해 중국의 핵기술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중국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미국이 6,000개 이상의 전술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24 개밖에는 확보하고 있지 않

7) 중국은 북한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자 식량 및 원유 자원국으로서 북중간의 교역은 북한 총교역액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1998년 통계). 양자 교역은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 및 국경 거래 증가에 따라 1995년 이래 점증하는 추세이나 1998년 교역 규모는 4.13억 달러로 1997년 대비 37%가 감소하였다.

8) Time(May 25, 1999).

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TMD 개발에 대만을 포함시키고 ABM무기체제와 관련된 군사 기술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하나의 중국 정책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만약에 대만이 TMD에 포함된다면 미중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NATO 공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바, 자국의 대사관이 미국 주도의 NATO군에 의해 폭격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한 중국 인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전혀 의도되지 않은 돌발 사건임을 시인하면서 정식으로 사과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⁹⁾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중국의 대미 견제 심리를 이용함으로써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미국의 對북한 압력에 대해 대응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이 제2의 유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은 유사시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차단하

겠다는 것이다.¹⁰⁾ 또한 미국과 핵문제로 대립한 경험이 있는 북한은 'Cox보고서'에 대해서도,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미국이야말로 핵위협을 일삼고 핵전쟁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¹¹⁾

그렇다면 이번 김영남 일행의 방중을 계기로 혈맹 관계 복원을 꾀하는 양측의 의지를 감안할 때, 중국이 코소보 중국대사관 폭격 이후 악화된 미중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해 반미 노선에 동참하기를 바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지구적 문제와 지역적 문제를 분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중국은 지구적 문제에서 미국과 패권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이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 북한은 중국이 요구하는 북중 관계 복원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최근에 방중한 김영남 상임

9) 데이비드 리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1999. 5.9).

10) 북한은 미국의 對유고슬라비아 공격이 '앞으로 조선반도에서의 북침 전쟁을 위한 시험 전쟁'이라고 비난하였다(「로동신문」(1999. 6.6)).

11) 「로동신문」(1999. 6.8).

위원장 일행은 홍성남 총리, 김일철 인민무력상, 최태복 당 중앙위서기, 백남순 외무상 등 당·정·군의 요인으로 구성된 국가대표단 약 60여 명의 대규모였다. 북한측 대표단들은 장쩌민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 및 주룽지 총리와의 면담을 비롯하여 별도의 외무장관회담과 국방부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중국 지도층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하였다. 북한측은 북중간 우호 협력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故김일성의 유훈이자 김정일의 뜻을 표명하면서 지속적인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금년에 식량 15만 톤과 코크스탄 40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 김영남의 방중을 계기로 리펑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중국국가대표단의 방북을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수락하였다. 특히, 금년 10월 6일의 수교 50주년에 즈음하여 공동 기념 행사를 거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양국 관계

는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북중 관계 복원과 북한의 대내 정책

김영남 일행은 지난 1998년 9월 북한의 헌법 개정 및 권력 구조 개편 이후 최초로 외국을 방문하였다. 국가주석직을 비워둔 채 군사위원장으로 실권을 행사해온 김정일은 외국 인사들과의 면담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방중에서도 김정일의 방문이 기대되었으나¹³⁾ 김영남이 대표로 파견되면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수행하였다.

북한의 개정 헌법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공식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은 전인대 초청으로 북한대표단을 맞이하였으며, 김영남을 국가 수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일의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을 끈다. 김정일이 대내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국정의 장악력을 유지할 것이지만, 명목 상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는 헌법 상의 국가 수반으로 되어 있는 김영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할 가능성이 높

12) 중국은 최근 3년간 북한에 대해 연평균 식량 15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코크스탄 250만 톤을 유·무상, 그리고 원유 130만 톤을 유·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회의의 참석자가 김정일의 방중이 올해 내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1999. 6.26).

다.

그동안 북한의 지도층들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또한 북한도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 건설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의 대외적 노출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발전의 열매만 따고 자본주의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식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식의 개혁·개방에 항상 부정적인 인식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김영남 일행의 방중시 리펑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당과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고민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중국형의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할 것인가.

김일성 사망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일행이 개방 도시 상하이와 항조우 등을 방문하면서도, 이 지역의 푸둥특구 등을 시찰하지 않았으며 대표단에 경제 전문가가 별로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 관련 별도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식의 대외 개방 노선을 따를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찬양하는 북한이지만, 조선은 '조선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 번영을 가져온 대외 개방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점진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 김정일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각자의 방식대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접근 자세에 대해 상호간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측은 북한이 석탄·강철·농업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발전에 기울이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변화된 입장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최근 '강성대국' 건설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경제대국' 건설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¹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

14) 「로동신문」, "강성대국", 1998. 8.22.

에서 북한은 이번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장기적인 경험과 원조 획득 및 외자 유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을 것이다. 김영남대표단의 방중에 앞서 양국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38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對중 채무액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23억 달러의 정부 채무와 15억 달러의 민간 채무에 대해 일부는 탕감하고 일부는 보상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중국은 북한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해줄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시에 한중간에 '21세기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북한 고위급의 중국 방문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 발전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복원을 위해 북한과 중국 양측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공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답한다는 차원에서, 朝中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은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지만,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¹⁵⁾ 그러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과 중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된다면, 이

는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와 주변국의 역할

김영남 일행의 방중 이후 예상되는 북중 관계 개선이 동북아 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를 살펴보자. 70년대 관계 정상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중대한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소원과 화해를 되풀이해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 증대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핵기술에 대한 스파이 활동 의혹과 TMD 개발 계획, 유고에서의 자국 대사관 폭격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계기로 주변의 전통적인 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 침체에 따른 자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독주에 대해 경계하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15) 최춘흠·홍용표(1999. 6), 「김영남 방중의 의미와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심화되어온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이번 김영남 일행의 방중을 계기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향후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과 일본 사민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총리 일행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패권적 독주에 대한 우려로 구사회주의권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국·러시아·북한간의 유대 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는 북미 관계 개선이 체제 유지에 절대적이라고 인식하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남북한 문제 조정관인 페리의 방북 기간중 북한에 전달된 한·미·일의 포괄적 협상안에 대해,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유일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미

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동북아에서의 안보 상황은 적어도 중국의 묵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순조롭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상호 경제 문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원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상호간의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국제체제의 다극화와 합리적인 신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수립하려는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주도 하에 이루어진 NATO의 군사 행동 강행과 중국대사관 폭격에 대한 비난에서도 보조를 맞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중 관계의 악화에 대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들의 체제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新안보선언을 채택한 미국과 완전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미 관계가 악화될 정도로 북한을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포기,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 개방을 요구

할 것이지만, 미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 따라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면서 북한과의 보조를 맞추고자 할 것이다.

과거 북한은 중국·구소련 분쟁을 이용한 국가 이익 극대화의 외교 전략을 구사한 경험이 있는데, 만약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미중간의 경쟁 관계를 이용하여 대미 협상에서 벼랑끝 외교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이 화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화합 분위기에 힘입어 교류·협력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는 한반도에서도 脫냉전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믿고 있다. 우선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중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향후 동북아 신질서 형성 과정에서의 남북한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 김영남 일행의 중국 방문에 따른 북중 관계 개선은 향후 동북아 질서 재편·북한의 내부 변화·남북한 관계 진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일행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를 복원하여 공조체제를 이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악화된 미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문제와 지역적 문제를 분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지구적 문제에서 미국과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이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 북한은 중국이 요구하는 북중 관계 복원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고민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으로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국형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북한은 '북한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 번영을 가져온 대외 개방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

하면서, 점진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 김정 일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각자의 방식대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추구하는 것을 상호간에 인정하고 지지할 것이다.

셋째, 북중 관계 개선이 예견되고 동북아 질서 재편이 가시화되는 과정이 남북한 관계에 지니는 함의를 지적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은 관계 정상화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중대한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소원과 화해를 되풀이해오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 미치는 양국의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동북아에서의 안보 및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양국은 이러한 상황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관계는 상호간의 경쟁 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과거 북한이 중국·구소련 분쟁을 이용한 양국간의 등거리 외교로 실리를 취했듯이, 만약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은 대미 협상에서 벼랑끝 외교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실현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미 관계 개선이 결정

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미중 관계 악화에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미국이 갈등 관계를 벗어나 상호 보완적 관계 하에서 화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은 북중간의 관계 복원에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지침과 한·미·일 공조에 대하여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포용하는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북아에서 탈냉전 분위기를 거슬러 새로운 완전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복원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고 21세기에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續**